



[일자리가 답이다] 달라진 청와대 삼성-SK-LG 최고위직 비공개 조찬회동 03



Economy

코스피 1993.70 (-16.30)	코스닥 657.02 (-12.35)
금리 (우대세 0.8%) 1.80 (-0.01)	환율 (원/달러) 1127.70 (+8.70) (3일)

집권 3년 차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가 새해 들어 경제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집권 초 '일자리 대통령'을 자부했지만 현재 일자리 성적표는 초라하기 때문이다. 일자리 실패를 시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때 "일자리 문제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일자리가 답이다!

말했다. 고용 환경이 나아지지 않자 국내 구직자들의 발걸음은 '이웃나라' 일본으로 향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대졸 취업률 98%' 달성 등 최근 일자리 호황이다. 일자리가 넘치는 일본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의 현재를 비교해본다. <편집자주>

일자리가 넘친다고? 5.6만 한국인 일본행

일자리노믹스를 엿보다

<下> 韓, 日 취업선호도 증가

도쿄(일본)= 채신화 기자

일본의 일자리 증가에 한국인의 일본 취업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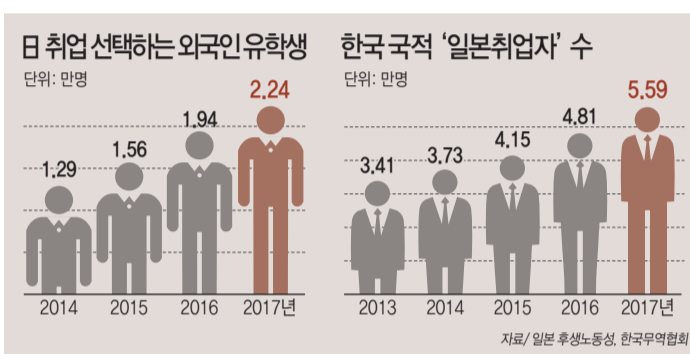
3일 한국무역협회 동경지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 취업한 한국인 수는 5만5926명으로 전체 외국인 취업자의 4.4%를 차지했다. 지난해 2010년만 해도 일본 취업 한국인 수는 2만8921명에 불과했는데 7년 만에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한국인의 일본 취업은 지난 2011년 이전 10% 이하의 증가율을 유지하다가 2015년 11.3%로 뛰었고, 2016년 16%에 이어 현재는 20%에 육박하고 있다.

박귀현 무역협회 동경지부장은 "일본 내 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며 "편의점에서 일하는 인원의 절반이 외국인이고, 운전 인력이 부족해 택배비가 인상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에선 유학생, 주부 등을 비롯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일본에 거주 중인 외국인인은 263만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17년 10월 기준 127만8670명으로 전년 대비



일본에 취업한 한국인 수 전체 외국인 취업자의 4.4% 7년만에 두배 가량 늘어나

일본 근무 만족도 58% 84%는 "일취업 추천할 것"

18% 증가했다.

그런데도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아 일본은 내년 4월부터 5년간 14개 업종에서 외국인 34만 5150명을 받아들일기로 했다. 14개 업종은 건설, 농업, 어업, 식음료제품제조업(수산가공 포함), 자동차정비업, 항공업(공항 지상지원, 항공기 정비), 조선·선박공업, 소형재 산업(기계공업), 전기·전자 정보관련산업, 산업기계제조업, 개호업(간병인력), 숙박업, 외식업, 빌딩 청소 등이다.

무역협회 동경지부의 지난해 11월 조사 결과 한국인의 일본 취업 증가 이유는 취업률과 일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일본 근무에 대한 만족도는 58%이며, 일본 취업을 지

인에게 추천하겠다고 대답한 응답률도 84%에 달했다.

한국인 유학생도 늘어나고 있다. 무역협회 동경지부에 따르면 EJU(일본유학시험) 응시자가 2년 전에 비해 3배 늘었고, 동경한국학교 고등 J반(일본 대학 진학반)도 증가했다. 일본 정부가 유학 온 외국인 학생의 현지 취업을 크게 늘리는 정책을 편 영향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서 일본에 대한 취업 체감 선호도는 높지 않은 분위기다.

극심한 취업난에 일본행을 택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지만 언어·문화 차이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들도 더러 있기 때문이다.

박 지부장은 "일본 유명 기업들이 한국의 취업박람회로 주 기적으로 참석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자국 취업 수요가 높기 때문에 한국 청년들의 반응이 미지근하다"며 "취업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언어 문화 등의 문제가 있어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csh9101@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 내 N15 전문 랩을 방문, 스타트업 기업 아이스맨오션이 스마트폰을 연동한 스쿠버다이빙 장비를 3D 모델링 출력기를 통해 제작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새해 첫날부터 창업현장 ㄷ, 일자리 창출에 '올인'

MS 찾아 청년기업가 격려 시제품 제작과정 등도 체험 혁신창업 활성화 노력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첫 외부 일정으로 3일 서울 중구 소재 '메이커스페이스(MS, 스타트업 일환)'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시제품 제작과정을 체험했고, 제조스타트업 분야의 청년 기업가들을 격려했다.

<관련기사 3편>

스타트업이란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들, 메이커스페이스는 전문적인 생산장비를 보유하지 않아도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물로 만들도록 설비를 갖춘 작업장을 각각 뜻한다. 문 대통령의 이번 현장 방문은 일자리창출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메이커스페이스 현장은 정부 지원으로 조성된 '엔피프린(N15)' 작업장이다. 이곳은 스타트업의 시제품 제작 및 양산을 지원할 고성능 설비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창업 실패가 두렵지 않은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전면폐지와 창업기업 부담 완화, 혁신 모험펀드 조성, 메이커스페이스 전국 확대 등을 통해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창업 활성화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임을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곳에서 세계 최초로 휴대용 수력발전기 '우노'를 개발한 박해린 이노마드

대표의 강연을 청취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인도 배낭여행 중 에너지 소외계층 문제를 인식했고, 그 연장선으로 우노를 만들게 됐음을 알렸다. 이어 '메이커스페이스 확산'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엔피프린(N15) 작업장을 방문한 후 '수제화 제작 현장'을 찾았다. 어려움을 겪는 수제화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곳에 뛰어들어 청년사업자들을 격려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곳에서 대통령은 직접 구두도 맞춤 예정"이라며 "새해를 맞이해 새 신발을 신고 국민을 위해 직접 발로 뛰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취지의 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2면에 계속>

/우승준 기자 dn114@

기관이 내다팔자, 2000선이 무너졌다

코스피, 2년 1개월만에 최저치

코스피지수 2000선이 깨졌다. 주식시장이 2년전 수준으로 후퇴한 셈이다.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애플의 매출 전망치 하향 조정 등이 하락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2차 하락장에 대비해야 한다는 진단도 있다. <관련기사 4편>

3일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16.3포인트(0.81%) 하락한

1993.7로 거래를 마쳤다. 증가 기준으로는 지난 2016년 12월 7일 1991.89를 기록한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장중 한때 1991.65까지 떨어지면서 1990선도 위태로운 모습을 보였다.

이날 하루동안 기관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만 1114억원어치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외국인과 개인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끌어 내리는 기록적 하락세를 보였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관이 증시 방향성을 아래쪽이라고 판단, 위험자산을 정리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날 증시 하락은 전일 발표된 중국의 작년 1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9.7로 나타나면서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이날 새벽 애플이 2019 회계연도 1분기(국내 회계기준 2018년 4분기) 매



코스피가 3일 2,000선 아래로 내려가며 약 2년 1개월 만에 최저치로 마감했다. 이날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에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16.30포인트(0.81%) 내린 1,993.70을 기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 전망치를 애초 890억~930억 달러(99조9000억~104조4000억 원)에서 840억달러(94조3000억 원)로 낮췄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 팀 록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판매부진을 주요 요인으로 꼽으면서 중국 경기둔화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됐다.

실제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의 약 23%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2%, 4%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일 보다 12.35포인트(1.85%) 내린 657.02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31일(648.67) 이후 2개월여 만에 최저치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64억원, 1114억원어치 주식을 쌓아 매도하면서 주가 하락을 견인했다.

전문가들은 추가 하락장을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